

네팔 사회의 차별과 저항: 종족성, 카스트, 지역성을 중심으로

박정석 지음, 『네팔의 비주류 집단들: 정체성의 정치, 귀속의 정치』(민속원, 2020)를 읽고

김경학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I. 역동적 네팔 사회와의 조우

한국에서 네팔을 만나는 것은 2000년대 이후 국내로 노동 이주한 네팔 청년들의 존재를 통해서가 아닌가 싶다. 한국인은 트레킹을 위해 네팔에 가서 네팔 사회를 만나게 되는데, 적어도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이전에 네팔의 겨울철은 ‘코리안 시즌’이라 부를 정도로 네팔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수가 많았다. 그러나 트레킹 말고는 네팔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매우 저조하고, 학문적으로도 네팔 사회를 연구하는 전문가의 수는 이 책의 저자를 포함해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적다. 관광산업은 네팔 이주자의 송금과 더불어 네팔의 중요 외화 수입원이다. 네팔을 찾는 관광객 대부분은 ‘카트만두 밸리(Kathmandu Valley)’와 ‘포카라 밸리(Pokhara Valley)’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산악 관광(mountain tourism)’을 위해서다. 네팔의 히말라야라는 존재는 글로벌 관광객을 네팔로 끌어들이는 데에 가장 매력적임에 틀림이 없다. 네팔의 지형적 환경을 한눈에 보여 주는 이 책의 머리말에 실려 있는 지도에 따르면 네팔 지형은 산악지역, 산록(hill) 지역, 평원(plain) 지역으로 대별된다. 산악지역은 험준한 네팔 서부 고원지대에서 나지막한 동부 평야 지역으로 연결되는 비스듬한 형국인데, 이런 네팔의 자연·지리적 환경은 네팔의 사회·문화적이고 정치·경제적인 맥락에서 차별과 배제를 가져온 역동적인 사회·정치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지리·정치적(geo-politic)’ 요인으

로 작동하였다. 특히 산록지역에서 평원지역으로의 북에서 남으로의 이주 그리고 카트만두 밸리에서 생태학적 여건이 좋은 동부 네팔로의 이주에는 힌두 카스트 집단, 종족집단, 네팔계와 인도계 사이의 지배와 종속 및 배제와 포용의 역사가 현재의 네팔까지 이어지고 있다.

『네팔의 비주류 집단들: 정체성의 정치, 귀속의 정치』(이하, 『네팔의 비주류 집단들』)의 저자는 인도 지역에 대한 인류학적 현지 조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적어도 2010년까지는 인도 전문가로 국내에 알려졌다. 저자가 사회·문화적으로 인도와 친연성이 강한 인접 국가 네팔 사회를 만나게 된 계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010년대 초부터 네팔을 방문하고 네팔 사회에 관한 연구물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그간의 연구물이 모여 『네팔의 비주류 집단들』이란 단행본이 탄생했지만, 사실 저자는 이 책이 나오기 약 6개월 전에 이 책에 소개되는 정체성과 인정의 정치에 관련된 다양한 네팔 사회운동에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는 『네팔, 힌두 왕국에서 인민의 나라로』(2019, 민속원)를 출간한 바 있다. 먼저 나온 책은 네팔 국가가 힌두왕국에서 세속국가로, 단일성에서 다양성으로, 배제에서 포용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배경을 풍부한 문헌자료를 통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 『네팔의 비주류 집단들』을 읽기 전에 한번 접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국내에 네팔 사회 전문가가 거의 없다시피 한 마당에 저자의 두 권의 단행본은 네팔 사회를 인문·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여러 분야의 연구자에게 매우 유익한 입문서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특히 『네팔의 비주류 집단들』은 네팔과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사회의 종족, 카스트, 종교 등이 토대가 된 사회운동에 관심 있는 연구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현대 네팔 사회운동의 성격: 책 구성과 주요 내용

종족, 카스트, 종교, 지역성을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는 집단적 운동은 네팔 사회를 연구하는 중심적 아젠다가 되었다. 주로 1990년대에 등장한 정체성의 정치는 기존의 국민과 민족의 개념뿐만 아니라 국가 구조에 도전하면서 더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네팔의 비주류 집단들』은 네팔의 ‘정체

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와 '귀속의 정치(politics of belonging)'라는 개념적 틀 속에서 종족집단, 달리트, 지역 토착 집단 등이 전개하는 일련의 사회운동의 복합적 과정을 규명하고 있다. 1990년의 민중봉기 이후 네팔에서 일어난 정체성 운동을 규명하고 있는 『네팔의 비주류 집단들』은 인류학적 현장 연구에서 수집된 1차적 자료보다는, 광범위한 문헌자료를 세밀히 분석해 산록과 평지의 네팔인, 카스트 집단과 종족집단(비 카스트 집단)이 전개하는 사회·정치적 운동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은 네팔의 '라나 체제(Rana System)'와 '판차야트 체제(Panchayat System)'라는 과거의 전제적 정권이 형성해 놓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비주류 집단에게 관철되는 지배와 차별의 역사를 보여 준다. 저자는 1990년대 네팔의 민주화 운동의 도래와 함께 비주류 집단들 주도로 일어난 집단적인 사회·정치적 운동과 이런 운동이 가져온 네팔의 사회·정치적 전환 과정 및 그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책의 머리말을 통해 저자는 네팔 사회에 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독자를 위해 네팔의 인구 구성과 지형적 특성 등의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1990년대 이후 '정체성 정치'와 '귀속의 정치'라고 명명되는 여러 사회운동을 이끈 '민중봉기(People's movement)', '마데시 봉기(Madesh movement)', '마오이스트 반군 주도 인민전쟁(Maoist's people's war, 이하 '인민전쟁')과 같은 네팔 사회에 폭발적 영향력을 끼친 사회·정치적 사건들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네팔의 비주류 집단들』은 네팔의 지배집단을 구성해 온 산록 지역의 힌두 상위카스트인 브라만(Brahman) 또는 바훈(Bahun), 체트리(Chettri), 일부 네와르(Newar) 중심의 봉건적 체제에 대한 비주류 집단의 거부와 저항의 집단적 사회운동을 소개한다. 8개의 개별 논문들로 발표된 글을 단행본 형태로 출판한 흔적은 장마다 네팔의 사회·정치적 배경에 대한 소개가 상당히 반복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이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배경지식이 해당 사회운동의 이해에 매우 중요함을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199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산록지역의 힌두 상층카스트 중심의 주류세력에 대한 비주류 집단의 반발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1990년과 2006년의 두 차례 민중봉기와 2007년 마데시 봉기는 대표적인 정치적 전환을 가져오는 계

기가 되었다. 특히 1996~2006년에 이르는 인민전쟁으로 봉건적 지배체제가 철폐되어 2008년 힌두 왕정 종식과 함께 연방민주공화국이 설립된다. 인민전쟁은 종족집단과 달리트 운동의 흐름을 강력하게 견인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주류집단에 의한 배제와 차별이란 쓰라린 경험을 해 온 비주류 집단의 불만과 이들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가져다준다는 마오이스트의 '장밋빛 희망'은 인민전쟁에 비주류의 적극적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의제로 이용됐다.

이 책의 8개의 장은 산록과 평원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제1부에 '산록사람들의 정체성의 정치'를 밝히는 4개의 글이,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장은 '평원 사람들의 귀속의 정치'를 보여 주는 2부에 편집되었다. 정체성과 귀속이란 이름으로 장들이 구분되었으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듯이(11쪽) 사실상 '정체성의 정치'와 '귀속의 정치'는 사회·정치적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 별도로 구분된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상호 연결된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 동원된 학술적 개념이다. 봉건적인 전제 정권하에서 힌두 상위카스트가 독점하던 경제적, 정치적 체제가 와해하여 정체성의 '차이'를 토대로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치 환경으로 변화되었다. 힌두가 아닌 특정 종족에 속한다는 종족집단 정체성의 정치가 주목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된 것이다. 특정 종족과 달리트를 포함해 모든 평지 사람들이 '마데시'라는 포괄적 이름으로 지칭되나, 이들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에 맞게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 각자의 방식대로 네팔 국민임을 주장하는 '귀속의 정치'를 펼친다. 따라서 '정체성의 정치'는 곧 '인정의 정치'와 맞닿아 있으며, '인정의 정치'는 곧 '귀속의 정치'와 연결됨을 알 수 있다. 평지 마데시라는 '정체성'을 토대로 결속할 수 있었고, 자신들도 네팔 국민임을 '인정'받음으로써 네팔 국민국가로 '귀속'되고자 하는 사회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 책 1부의 1장은 네팔 최대의 축제 '다사인(Dasain)'에 대한 산록지역의 동부 지역 자나자티 집단의 거부 운동의 사례를 통해, 1990년대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자나자티'라는 정체성을 자각하는 종족집단의 반힌두적 성격의 사회운동을 보여 준다. 2장은 산록지역의 카트만두 벨리의 네와르(Newar) 종족집단에 관한 이야기이다. 네와르는 다른 종족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힌두 카스트 지배집단으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 정부가 관철하고자 했던 네팔어, 힌두교, 힌두 문화를 통한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네와르 역시 고유언어인

네와르어의 위상이 추락하고 마침내 사용이 금지되는 문화적 차별을 경험했다. 1990년대 이후 사회·정치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네와르 지식층을 중심으로 네와르어 보존을 통한 정체성 자각 운동이 시작되고, 이 운동은 점차 네와르의 자치권을 주장하는 정치적 운동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네와르 내부에 불가촉천민 등 엄격한 카스트 위계질서가 있어 네와르 사회의 결속을 통한 네와르 운동의 동력은 상실하였다.

3장은 네팔 동부에 있는 산록지역 림부(Limbu) 종족에 관한 이야기이다. 몽골계통에 속한 림부는 자신의 지역을 림부완(limbuwan)이라 부르는 토착민이다. 구르카 왕조는 림부를 복속한 후 림부 지도층에게 ‘수바’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키파트(kipat)라는 공동체적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 등 일부 자치권을 허용했다. 그러나 구르카 왕국은 네팔 동부의 토지확보를 위해 힌두 상층카스트를 림부 지역인 동부로 이주시켰다. 상층카스트 힌두 인구가 증가하자 림부와 비 림부 간 갈등이 고조되고, 힌두 상위카스트의 림부 토지에 대한 침탈도 심화하여 경제적 지배를 가속했다. 토지를 상실한 림부는 임금노동자나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구르카 용병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1960년대 초 토지개혁으로 키파트 체계가 완전히 폐지되어 림부 자치권이 몰락하고 림부에 대한 힌두 문화적 지배력도 확장되었다. 1990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림부의 문화적, 정치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자치주와 자치정부의 구성을 요구하는 림부의 림부완 자치주 운동은 2015년 네팔 전역이 7개 연방으로 재편되면서 힘을 잃었다.

산록지역 힌두 불가촉천민들의 ‘달리트’ 명칭 사용을 집단 정체성 운동으로 분석하는 제4장은 대부분이 달리트인 직공 카스트(artisan castes)에 관한 이야기이다. ‘물루키 아인(Muluki Ain)’이라는 시민법은 네팔 카스트 체계의 정당화와 위계화를 국가가 주도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였다. 산록지역 불가촉천민에 속한 대장장이, 재단사, 구두 제작 및 수선공 등의 최하층에 속한 직공 카스트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지배집단인 힌두 상층카스트로부터 차별을 당했다. 산록 달리트는 종교·언어·거주지역 면에서 힌두 상층카스트와 차이가 없지만, 의례적으로 부정한 존재라는 이유로 오랜 핍박을 받아 왔다. 2002년 ‘전국달리트위원회’라는 공식적 기구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달리트 운동이 시작했으며, 달리트는 인민

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사회·문화적 현장에서 자신들에 대한 차별을 줄일 수 있었다.

제2부는 ‘테라이(terai)’라 부르는 평원지역의 타루 종족, 무사하르 달리트, 무슬림의 사회운동을 ‘귀속의 정치’의 양상으로 분석한다. 네팔과 인도를 가르는 국경 인근에 넓게 펼쳐진 평지 테라이에는 ‘이질성’, ‘이방인’, ‘변경성’, ‘주변성’ 등의 상징이 따라다니며, 주류집단은 이런 상징을 토대로 평지사람 마데시(Madesh)를 차별하고 배제해 왔다. 마데시의 ‘귀속’의 정치는 자신들을 ‘온전한’ 네팔인으로 취급하지 않으려는 산록지역 주류집단의 차별과 배제에 맞서, 자신의 정체성을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시켜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온전한 네팔인 범주에 속하고자 하는 마데시만의 정치적 기획을 지칭한다. ‘마데시’의 지칭 대상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평원지역을 상대로는 테라이에 사는 전체 인구가 마데시이지만, 산록지역 이주민·종족집단·무슬림을 제외하고 인도계 이주민만을 마데시로 지칭하는 때도 있다.

5장은 마데시 봉기의 이야기인데 주로 인도계 네팔인이 네팔 시민권 취득을 위한 과정이 핵심을 구성한다. 인도에서 네팔로 이주가 장려되어 테라이 지역에 인도계 인구가 늘어 갔으나, 산록의 지배층은 인도계를 이방인으로 간주하고 군·경 채용, 언어와 문화 및 시민권 면에서 차별하고 배제해 왔다. 네팔어 구사 능력과 네팔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등 시민권 취득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국적 없는 마데시가 많다. 더구나 모어인 힌디 대신 네팔어 사용이 강제되는 등 마데시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심화했다. 인민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마데시라는 지역 정체성을 토대로 집단 정체성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연방제와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 대한 마데시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마데시 봉기가 일어났으며, 마데시는 봉기를 통해 더는 이방인이 아닌 네팔의 국민임을 선포하였다.

6장은 타루 종족이 마데시가 아닌 토착민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분석한다. 네팔 전체 인구의 약 6.6%라는 상당한 인구 규모의 타루 종족은 언어와 전통 의상과 의례 등을 지닌 테라이의 종족집단이다. 내부에 문화와 언어 관습이 다른 26개의 하위집단이 있는 이질적 집단임에도 하나의 타루라는 지역 토착민이라는 담론이 동원된다. 이들은 토착민 정체성으로 인도계와 산록

지역 이주민과는 ‘다름’을 강조하여 토착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략적 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토착민에게 부여하는 정부의 각종 혜택을 얻기 위해서나 정치·경제적 영역에서 일정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자신들의 정체성 변화를 통해 토착민의 범주에 속하고자 하는 귀속의 정치를 하였다.

7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테라이의 무사하르 달리트가 달리트가 아닌 종족집단임을 주장하는 운동이다. 무사하르는 마데시의 달리트로서 달리트 중 최하층 달리트로서 차별과 배제를 심각하게 당해 왔다. 테라이 달리트는 시민권 획득의 편리함 때문에 자신들이 달리트가 아닌 테라이의 ‘토착민’이었음을 주장한다. 사실 무사하르 카스트는 힌두교도로서 힌드를 모어로 사용하는 불가촉천민이며 특정한 직능집단이 아니다. 유랑민으로서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네팔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민권 취득요건을 갖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높은 문맹률과 만성적 부채 등으로 테라이로 이주한 산록지역 힌두 상층카스트의 경제적 지배를 받아와 모든 무사하르는 토지 없는 빈곤 상태에 있다. 무사하르는 마데시의 민중봉기 등에 힘입어 지도자를 중심으로 힌두 카스트가 아닌, 테라이 밀림지대에 오래전부터 거주한 토착민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달리트에게 제공하는 정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불가촉천민이란 낙인에서 벗어나고 토착민에게 제공하는 시민권 획득 기회를 잡기 위해 무사하르는 종족집단으로 정체성을 변화하고자 한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인 8장은 네팔 전체 인구의 약 4.4%를 차지하고 테라이에 거주하는 네팔 무슬림이 종교 소수집단으로 정체성을 구성하는 이야기이다. 역사적으로 외부에서 네팔로 이주한 일종의 디아스포라인 네팔 무슬림은 내부의 다양성으로 집합적 정체성이 아닌 개별 무슬림 정체성이 표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종족집단 정체성 운동의 확산으로 하나의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표상으로 집단 정체성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네팔이 2008년 연방제 공화국으로 전환되면서 인구 규모에 따른 비례대표 선출과 소수집단 보호를 위한 차별적 보호 제도가 도입되자, 테라이 무슬림은 자신들을 ‘마데시’라는 지역 정체성이 아닌 무슬림이라는 소수 종교 정체성을 선택했다. 2015년 개정된 네팔 헌법에 무슬림 정체성이 하나의 범주로 인정되고 2017년 선거법에 인구비례에 따른 별도의 의석이 확정되었다. 신헌법에 무슬림이 종교 소수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네팔 무

슬림의 사회·정치적 정당성과 문화적 종교적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되었다.

이상 『네팔의 비주류 집단들』의 8개의 장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필자가 이 책에서 발견한 미덕은 현대 네팔 사회에서 전개된 다양한 종류의 정체성 운동의 유형적 특성과 종족 정치의 성격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있다. 이 책이 비록 네팔에 한정된 종족 민족주의의 복합적인 쟁점을 규명하고 있지만, 넓게는 남아시아 사회의 국가, 민족, 종족성 등에 관련된 쟁점들의 연구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III. 네팔 사회에서 ‘종족성(ethnicity)’ 논의

종족성을 설명하는 이론체제로 흔히 ‘원초주의(primordialism)’와 ‘상황주의(circumstantialism)’ 또는 ‘도구주의(instrumentalism)’가 언급된다. 원초주의는 종족 정체성이 출생, 인종, 혈연, 언어, 지역성, 종교, 관습 등 선형적으로 주어진, 즉 원초적인 문화적 속성에 의해 이미 내재했음을 강조한다. 반면 상황주의는 종족 정체성이 집단적인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해 때문에 수단적인 목적으로 문화가 동원된다고 주장한다. 종족성을 자연적이고 본질주의적으로 개념화하는 원초주의와는 달리, 상황주의는 종족성의 감정적이고 상황적 성격을 강조한다. 1990년대 이래 네팔의 민주화 운동의 맥락에서 자신들의 독자성을 토대로 종족집단을 ‘자나자티(Janajati)’로 호명하는 종족집단 운동에 대해 네팔의 종족성을 이해하기 위해 위의 두 가지 관점만으로 단순화하여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네팔의 종족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자나자티’는 힌두 카스트 체계에 속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생활 터전을 두며, 독자적 언어와 문화를 지닌 집단으로 정의되는 것 같다. 네팔 정부는 1996년 1월에 자나자티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종족집단 출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집합적인 문화적 정체성, 언어와 종교 관습 및 문화, 평등한 전통적 사회구조, 구술과 문자 역사, 공동체 내 ‘우리 감정(we-feeling)’을 지닌 네팔의 토착민을 ‘자나자티’로 정의했다(FEFIN and ILO, 2005). 이 위원회는 종교, 문화, 사회조직, 언어 등의

고정적이고 객관적으로 주어진 특성을 토대로, 다시 말해 원초적 특성을 기반으로 해 종족집단, 즉 자나자티를 규정했다. 이런 식의 자나자티 정의에는 태생적 애착과 역사적 기억이 종족집단을 형성·유지하는 데에 핵심이라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네팔의 비주류 집단들』의 저자도 네와르, 립부, 타루 등 종족집단의 사회·문화적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자 정체성 확인의 도구로 이들의 언어와 종교적 전통임(94쪽)을 말한다. 한편 저자는 집단의 정체성과 경계선이 다양한 요인과 목적에 의해, 그리고 다양한 주체에 의해 지속해서 재구성되기 때문에, 종족 정체성이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속성으로 틀 지어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재정의되고 재생산되는 현상임(153-154쪽)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보면 저자는 원초적인 문화 자산이 정체성 형성에 중요하지만, 정체성의 경계는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한 것임을 지적함으로써, 종족성의 원초주의와 상황주의 관점의 중요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네팔의 비주류 집단들』의 전반에 흐르는 종족성 또는 종족집단을 분석하는 저자의 입장은 문화적 특질과 같은 객관적이고 고정된 표지보다는 종족 경계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즉 원초주의에 의존해 현대 네팔 종족운동을 분석하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종족집단은 고정된 불변의 범주가 아니고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지고 재생산되는 범주라고 생각한다. 책의 저자가 주로 거시적 수준에서 분석한 기존 연구로부터 자료를 가져다가 논의를 전개하기 때문에 종족집단 구성원이 펼치는 사회·정치적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사실 종족집단의 정체성은 맥락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다. 특정 종족집단 운동 내에는 종족운동을 주도하는 엘리트 활동가들과 일반인 사이에 아젠다를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Gellner, 2001: 5). 특정 종족집단에 대한 기존의 인류학적 민족지들에는 종족 간 상호작용의 사례들, 예컨대 종족 간 혼인을 통한 종족집단 구성원의 혼합뿐만 아니라, 정치적 개입 정도·이념·교육·계급·직업·거주지·타 집단과의 상호작용 등의 특성에 따른 종족집단 내의 다양성과 비동질적 성격들이 잘 드러나 있다.

종족성은 고립의 산물이 아닌 상호 관계 또는 접촉의 결과다. “종족성을 상호 작용의 현장에 위치시킨다.”라는 이야기는 공유된 조상의 문화에 근거한 자연적, 보편적, 반영구적 집단 정체성으로 종족성을 이해하는 태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와 관련해 바쓰(Barth, 1969)는 문화적 내용물보다 경계가 종족성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경계 내에서 드러나는 종족 구분(차이)은 다른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현대 네팔 사회의 종족 정체성 운동을 더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 ‘경계 만들기(boundary making)’에 동원되는 문화적 요소와 그것을 발명·생산·유포시키는 주체와 힘과 상황들의 파악(김광익, 2005: 26)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1996년 ‘자나자티 위원회’의 자나자티 정의의 속성에 따라 살펴보면 『네팔의 비주류 집단들』의 3장과 6장의 주인공인 산록지역 림부와 평야지역 타루 종족집단은 자나자티 범주에 지극히 적합한 대상이다. 지역의 토착민으로서 이들은 언어와 전통적 의례 및 관습을 갖고 있으며, 또한 힌두 ‘바르나 체계(varna system)’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다. 또한 두 집단은 각자의 공통된 신화와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고 있어 태생적으로 공통의 의식이 형성된 것처럼 보이고, 특히 종교, 문화, 사회조직과 언어 등의 특성에 기반하여 ‘우리 감정’이라는 소위 원초적 감정을 기반으로 종족 정체성을 표출하는 ‘정체성의 정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두 집단이 생물학적 특징과 영토성 및 문화적 기반만으로 종족 정체성을 형성·유지하였다는 원초주의적 해석에 상황주의 또는 도구주의적 관점을 결합하면 그들의 종족운동과 정체성의 구성과 유지가 더 선명하게 이해되지는 않을까.

스파이서(Spicer, 1971)와 스콧(Scott, 1990)은 종족성과 종족집단의 결속을 설명하는 모델로 원초주의와 상황주의의 통합을 강조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종족성의 기원이나 지속성은 원초주의가 적절히 설명하지만, 상황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는 데는 해당 종족집단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팔 힌두 상위카스트 중심의 지배집단의 타루와 림부에 대한 주변화(marginalization)와 배제가 타루와 림부의 종족 정체성을 한층 더 선명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자원에 토대를 둔 림부와 타루의 ‘정체성 체계’(원초주의)는 이들을 둘러싼 지배집단의 정치·경제적 맥락에서의 ‘적대적 과

정(oppositional processes)’이 타루와 림부의 더 선명한 종족성과 정체성이 등장한(상황주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네팔 중앙 정부가 힌두 상위카스트 지배집단을 림부와 타루의 생활 터전으로 이주시킴으로써, 타루와 림부는 토지 상실과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 및 빈곤의 악화를 경험했다. 주류집단의 소수집단에 대한 주변화와 차별화 등의 적대적 과정이 타루와 림부의 더 선명한 상황적이고 출현적인(emergent) 종족 정체성의 형성과 유지를 가능하게 했을 것으로 본다.

IV. 네팔 사회변화와 ‘이주(migration)’

『네팔의 비주류 집단들』이 탐색하는 산록과 평야지역의 종족성, 카스트,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체성과 귀속의 정치의 역동성 근간에는 늘 이주의 요인이 자리했다. 네팔에서도 이주는 늘 있었던 인간의 이동으로서 근대 국민국가 성립 이전에도 가난·토지를 비롯한 자원의 불균등·농업과 가축사육 등을 위한 네팔과 인근 지역 사람들의 계절적 이동 등 다양한 이유로 국내·외 이주가 있었다. 티베트의 험난한 기후를 피하려고 중국에서는 유목 몽골계가, 인도에서는 브라만과 라즈푸트(Rajput) 등이 이슬람 무굴제국의 종교적 탄압을 피해 네팔로 이주했다(Sigdel, 2011).

1768년 프리티비 나라얀 샤 국왕은 네팔을 통일시키고 인도인이 테라이로 이주하기를 장려했다. 인도인의 테라이로의 집단적 이주는 1769~1770년 벵골과 비하르 지역의 대기근 발생으로 물과 토지가 풍부한 테라이 지역으로 인도인이 몰려들었다(129쪽). 샤 국왕부터 ‘라나 체제’와 마헨드라 국왕의 ‘판차야트 체제’ 기간 내내 군인, 관료, 왕실, 측근에게 토지를 하사하고 경제적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왕국과 체제 유지를 위해 더 많은 토지확보의 필요성이 있었다. 정부 관료들에게 비화폐적 수단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미개간지 및 황무지 개간과 경작을 독려하기 위해(78-79쪽), 네팔 왕국은 바훈(Bahun)과 체트리(Chettri) 등 상층카스트 힌두에게 동부와 남부 네팔로 이주할 것을 장려했다.

네팔 동부 산록의 림부완 지역을 정복한 중앙 정부가 키파트 토지 침탈과 림부지역으로 비 림부 이주를 장려함으로써, 림부 토지는 이주민인 비 림부에게

넘어가면서 림부는 토지 상실과 무토지 또는 소작농으로의 전락하였다(81쪽). 이는 림부 정체성 운동의 토양으로 작용했다. 한편 네팔 남부 테라이의 타루 종족의 정체성 변화를 위한 집단 움직임도 1950년대에 테라이에서의 말라리아 박멸과 농지 재정리의 작업이 끝난 후 산록지역의 힌두 상위카스트들의 테라이 지역으로 본격 이주가 시작된 것과 긴밀히 연관된다. 말라리아 퇴치 이전까지 타루 종족은 상대적으로 고립되었다. 그러나 말라리아 퇴치 이후 산록의 상층카스트 힌두가 타루의 주거지 테라이 중서부로 대거 이주하면서 토지 담보로 채무를 진 타루의 토지 상실과 이주민의 토지 장악으로 타루는 이주민의 속박노동자로 전락하였다(159-160쪽).

마데시 인구 중 다수집단은 인도계지만 적지 않은 산록지역 출신도 테라이에 산다. 1960년대 중반에도 여전히 인도인의 네팔 이주는 장려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산록주민의 테라이 내부로 이주가 장려되었고, 이 정책으로 산록 출신들이 많은 혜택을 입어 테라이 지역의 토지와 삼림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사실 산록주민의 테라이 이주는 이 지역을 네팔화하겠다는 네팔 정부의 주요 수단이었다. 게다가 네팔 정부는 산록출신 이주민에게는 우대정책을 펼치지만 마데시 주민은 늘 이방인으로 취급되었다. 이에 대해 마데시는 강하게 반발하였다(169쪽). 사실 마데시 봉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 것은 테라이로의 산록 주민의 대거 이주 장려였다.

『네팔의 비주류 집단들』은 종족과 마데시 운동들과 국내·외 이주의 요인 간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 준다. 사실 네팔은 연속된 이주로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다. 힌두 상위카스트의 히말라야를 관통한 ‘서부에서 동부로의 이주’, 산록 사람의 ‘테라이 남부로의 이주’, 더 나아가 타루 처럼 ‘동부 테라이에서 서부 테라이로의 이주’ 등 네팔 근현대 시기의 인구 구성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끄는 주요 요인은 이주였다. 사실상 이주는 생계의 마지막 수단인 것 같다. 오늘날 네팔은 대규모 국제노동이주가 진행되는 나라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다수의 이주자를 인도와 산록지역에서 수용했던 테라이에서 수많은 청장년이 걸프 지역 국가와 말레이시아 등지로 국제이주를 한다. 네팔의 이주 양상은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이 상호교차하고 있는 현상이 네팔임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네팔의 비주류 집단들』의 4장은 산록지역 달리트가 오랜 기간 바훈과 체트리로 대표되는 힌두 상위카스트로부터 사회·경제적으로 차별·배제를 당했다고 말한다. 1990년대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달리트 조직, 특히 2002년 ‘전국달리트 위원회’ 결성은 달리트의 정체성 자각 운동에 동력을 불어넣었다. 달리트 지도자들이 대거 공산당 진영에 참여하면서(115쪽) 달리트 운동이 계급투쟁과 결부되면서 상위카스트의 달리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록 불가촉천민들이 달리트 명칭을 집단 정체성의 표지로 사용해 다른 소수집단과 구별되는 독특한 피억압 집단임을 천명(118쪽)하는 것만으로 달리트의 사회·경제적 입지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필자는 최근 2년에 걸쳐 산록지역 달리트의 국제이주와 이주가 가져온 달리트 사회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박타푸르(Bhaktapur) 인근의 산록지역 마을들에 대한 인류학적 현지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연구지 세 곳의 마을에는 바훈과 체트리처럼 네팔 사회의 주류집단, 네와르를 비롯한 타망(Tamang)과 구룽(Gurung)의 종족집단 그리고 재단사 다마이(Damai), 구두 수선공 미자르(Mizar) 달리트 등이 함께 살고 있다. 1996~2006년에 벌어진 인민 전쟁이 산록지역 일대 지역의 카스트와 종족 및 젠더 관계에 영향을 미쳐 불평등과 차별이 악화된 것에 대해 마을의 상위카스트와 달리트 할 것 없이 모두 일정 부분 동의했다(김경학, 2019). 1990년대 이후 민중봉기와 인민전쟁 등이 달리트와 종족집단의 지위 향상에 기여했음은 『네팔의 비주류 집단들』에도 누누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인민 전쟁과 같은 정치적 격변이 달리트 개개인 또는 가족 수준에서 달리트의 생계를 위해 부유한 상층카스트 지주에 대한 의존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음을 조사지역 달리트는 한목소리로 말한다. 상층카스트 지주의 지배와 종속에서 오는 사회·경제적 차별이 줄었음을 달리트가 느끼게 된 것은 그들 가족 구성원의 해외 이주와 이주에서 유입되는 송금을 통해서라고 그들은 경험적으로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달리트의 국제이주가 달리트의 상층카스트와의 사회·경제적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 요인이었음을 강조한 기존 연구(Sunam, 2014)를 통해서도 설득력을 얻는다. 산록지역의 달리트의 국제노동이주는 바훈과 체트리 및 네와르 지주들과 의복, 구두, 철제농기구의 제작과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경제적 교환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농업 관계에서도 달리트가 지배집

단의 예측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지배집단과의 소위 ‘거리두기(distancing)’가 가능해 달리트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었다(김경학, 2019: 67). 산록 달리트가 자신들을 달리트 집단으로 단순히 호명한다는 것이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쉽게 이어지기는 어렵다. 오히려 가족의 국제이주에서 오는 ‘현금 송금’과 위생개념이나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소위 ‘사회적 송금(social capital)’이 지배집단에 대한 달리트의 협상력 및 자존감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국제이주 노동 경험을 통한 달리트의 차별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민중봉기와 인민전쟁과 같은 일련의 정치적 환경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V. 후속 연구를 기대하며

『네팔의 비주류 집단들』은 저자의 다른 책 『네팔, 힌두왕국에서 인민의 나라로』와 함께 네팔사회에 관심 있거나 학문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는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 10년에 걸친 연구 결과물이니 만큼 책의 여기저기에 광범위한 기존 연구물들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다만 책의 저자와 마찬가지로 서평을 쓰는 필자도 인류학도다 보니, 특정 종족 집단이나 카스트 집단의 사회운동 관련 ‘따끈따끈한’ 현지 자료가 연구 내용에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한편 강한 가부장적 사회인 네팔에서 네팔 여성은 대표적인 비주류 집단의 하나다. 종족성, 카스트, 지역성, 종교 등의 상호 교차성이 네팔 여성운동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내는지, 이에 관한 후속 연구를 이 책의 저자나 또 다른 연구자가 후속 연구를 수행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본다. 아무튼 이 책은 아시아, 특히 남아시아 지역연구자들에게 학문적 자극을 주는 매력적인 연구물임에 틀림이 없다. 향후 이 책의 저자의 뒤를 이어 네팔을 자신의 전공지역으로 삼아 ‘네팔 지역전문가’가 되려는 젊은 학도에게 이 책은 더없이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는다.

참고문헌

- 김경학. 2019. “국제이주와 달리트 카스트의 사회경제적 관계의 변화: 네팔 ‘카브레-팔란 초크 지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31권 2호, 60-75.
- 김광역. 2005.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아카넷.
- 박정석. 2019. 『네팔, 힌두왕국에서 인민의 나라로』. 민속원.
- Barth, F., ed. 1969.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The Social Organizations of Cultural Difference*. Boston: Little Brown.
- Gellner, D. N. 2001. “How Should One Study Ethnicity and Nationalism.” *Contributions to Nepalese Studies* 28(1).
- NEFIN and ILO. 2005. *ILO Convention No. 169 and Peace Building in Nepal*. Lalitpur: Nepal Federation of Indigeous Nationalities.
- Scott, G. D. 1990. “A Resynthesis of the Primordial and Circumstantial Approaches to Ethnic Group Solidarity: Towards and Explanatory Model.” *Ethnic and Racial Studies* 13(2).
- Sigdel U. 2011. “Migration and Social Change of Tharus in Terai Nepal: Analysis of Anthropological Demographic Perspective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Journal* 11(2).
- Spicer, E. 1971. “Persistent Identity.” *Science* 4011.
- Sunam, R. 2014. “Marginalized Dalits in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Reconfiguring Economic and Social Relations in Nepal.”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12 August.

